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By Bryan Johnson

감사의 말 :

각 질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수고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싱가포르의 리빙워드 동료들과 그 곳에 있는 성경통신학교 학생들
- New Covenant International Bible College, Auckland 및 연구과정 학생들
- 오uckland 테버나클 침례교회에 속한 키위인터네셔널 프렌드십 모임에 참석하는 유학생들

커버 디자인 :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이들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 표지 디자인에 수고해주신 테니스 유안 마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픽 디자인:

작은 책자 디자인을 예쁜 작업으로 수고해주신 오uckland의 레베카 슬로봇티코브 다리아스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 및 감수 과정에 수고해준 Elaine Colman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자.

브라이언 애슐리 존슨 All rights reserved The Asia Pacific Discipleship Trust
뉴질랜드 위원회 등록 CC28265

뉴질랜드의 모든 기독교 서점에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초판 5,000 1979; 2 판 3,000 1981; 3 판 5,000 2010; 4 판 4,000 2018.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문은 다음 성경으로 사용.

New Living Translation, copyright 1996, 2004.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Wheaton, Illinois U.S.A 60189의 허가하에 사용. All rights reserved.

그밖에 사용 된 성경 번역들.

KJV-킹 제임스 버전, NASB-새로운 미국 표준 버전, RSV-개정 된 표준 버전,
뉴질랜드 국립 도서관,

Johnson, Bryan Ashley, 1949

새로운 기독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 / Bryan Ashley Johnson. 4 판. 색인 포함.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초대 할 때는 믿음으로 하게 되지요.
우린 우리 삶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않으며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기에 앞서서 모든 질문들에 대해 답을 내리려고 한다면 초대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삶의 가장 놀라운 경험을
놓치게 되고 말 겁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하나님과의 평화는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하려는 평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 전서 3장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작은 책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영생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보의 근원만이 아니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신 일에 대해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참고 문헌을
찾아보고 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과 함께 보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경이 없으시다면 인터넷에 '개역 번역'을 검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편집하고 읽은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이 책자의 뒷면에는 알파벳 주제 색인이 있습니다. 뒷면 두 페이지 안에는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울 워너' 가이드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빌립보서 2:13 & 3:10).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Bryan A Johnson.

목차 : 주제 및 질문

[A. 천지창조]

1. 지구는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2.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인류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문제인가!
3.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4. 첫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벌하는 것이 공평한가?

[B. 구원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

5.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6.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
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8. 누군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다른 종교로 바꿀 수 있을까?
9.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한다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면 용서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0. 기독교 신앙이 없는 친구는 어떤가?

[C. 신앙생활]

11. 새로운 신앙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단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2. 그리스도인은 물로 세례/침례를 받아야할까?
13.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은 완전히 물에 잠겨야 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14. 예수님은 요한에 의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15.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
16. 기도가 필요한가?
17.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실까?
18.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 성경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21.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 것인가?
22.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가?
23. 기독교인이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어야 하나?
24. 그리스도인은 어느 교회에 십일조를 바쳐야 하나?
25.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26. 그리스도인이 독주나 마약 같은 것을 해도 되나?

27.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해도 되나?
28.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유흥 장소에 가도 되나?
29.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30. 뒤로 물러 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31. 그리스도인이 우울하고 낙담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32. 성화란 무엇인가?

D. 강한 믿음을 키움

33.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34.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나?
35. 믿음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나?
36. 죽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37. 믿음과 기적은 어떤 관계인가?
38.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9. 그리스도인은 왜 금식하나?

E. 경건한 성품으로 성장

40. 그리스도의 제자와 추종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41. 경건한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42. 온전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습니까?
43. 집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4.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F.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45.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갑니까?
46.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습니까?
47.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48.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49.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 정부를 대신 하게 되나요?

G. 정부와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50. 우리는 정부와 준법을 지켜야 합니까?
51. 그리스도인은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까?
52. 예수님은 급진적인 사상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린 혁명가들이 되어야 할까요?
53. 민주주의는 기독교 정부의 형태입니까?

H. 성경은 다문화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나요?

54. 기독교인이 된 나는 민족 정체성을 잃게 되나요?

55.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만드셨습니까?

56. 예수는 유대인의 신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57. 나의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I. 하나님

58.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누가 하나님을 창조 하였습니까?

59.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신을 믿습니까?

60.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 하셨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왜 세상이 영원히 순수 할 수 있도록 사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나요?

61. 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2. 하나님은 사랑 이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을까요?

63. 성령은 누구입니까?

64. 삼위일체는 무엇(또는 누구)입니까?

65. 성경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66.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67. 모든 종교가 동일하지 않나요?

68.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은 꼭 중요한 것일까요?

69. 늘 하루 다섯번 기도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야 하나요?

70. 이전에 해오던 기도들은 암송되어왔는데 기독교의 기도들도 암송해야 할까요?

71. 천국에는 힌두교도, 불교도, 무슬림들도 있을까요?

J. 위인들과 기타 종교들

72. 수많은 위인들이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도 성경만큼 공부해야 할까요?

73.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을 우리도 먹으라고 준다면 이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까?

74. 향을 들고 조상에게 기도해도 되나요?

K. 죽음과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

75. 기독교인은 죽는 즉시 천국에 가게 되나요?

76.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심판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요?

L. 그리스도의 재림

77. 환난의 때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78.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 된 앞날들을 어떻게 예견 했나요?

79.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까요?

M. 성경 - 하나님의 말씀

80.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81.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요?

82.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은 정확한가요?

83.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84. 번역 될 때 의미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N. 미래에 대해서.

85. 어떤 사람들은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나요?

O.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86. 기독교인들은 왜 결혼 후에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87. 궁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88.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란 무엇입니까?

89.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0. 예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91. 낙태해도 괜찮습니까?

P.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92.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Q.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목표!

93. 기독교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A. 태초에]

1. 지구는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창조된 것입니다.

지구를 만든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땅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 11 장 3 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말씀의 명령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체들과 물질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24 편 1 과 2 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2.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인류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 장 26 -28절에는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땅을 다스리고 열매를 맺고 가꾸도록 하였고 사람이 땅에서 탁월하게 될 목적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사야 43:7) 그에게 만족을 주게 하셨습니다.(요한계시록 4:11) 그러나 그가 창조하신 것은 무엇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5:18). 인류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인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인류는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6:23).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과 인류와의 관계에서 불순종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16-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교회(곧 진정한 신앙인들)는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19, 20)

3.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전지적(모든 것을 아는)능력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 하셨을 때 (창세기 1:26) 인류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류가 선택할 능력없이 창조 되었다면 그들은 매우 제한적인 존재가 되고 창조된 목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능력이 없는 피조물이라면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인류가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조주를 설계상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인류는 불순종으로 고통받습니다.(로마서 3:23, 7:19-20) 인류와 달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그의 성실과 거룩은 완전합니다.

4. 첫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벌하는 것이 공평한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지만 (창세기 1:28) 항상 사탄은 인류를 저주에 빠뜨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죄는 불순종이며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로마서 6:23)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 한 결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지구는 저주를 받았으며 아담의 마음은 죄와 불순종의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창세기 3:17) 이는 인류의 마음이 사악해지고 인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류를 더럽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마태복음 15:18-19).

인류가 번식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도 악한 마음을 번식해 갔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품 듯이, 마음이 악한 사람도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것이니까요.

죄의 결과로 인류의 딜레마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개개인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주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로마서 8:9) 이것이 인류가 지은 죄의 저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방법입니다.

[B. 구원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

5.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움으로써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6-10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방해를 받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곧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다른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면 지옥에서 구출되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 킨다면 의심 할 여지없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그 분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 말이죠.

6.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따라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생기는 결과적인 삶의 변화를 부모에게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모두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인이 되고 (행 1:8),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벧전 3:15)

기도 할 때, 하나님께 당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에베소서 2:13 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당신의 생명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렇게 높은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가 당신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5-6)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서의 선교를 마치기 전에 앞으로 신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20-24).

8. 누군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다른 종교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선택 및 결정 내리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담은 에덴 동산에서 매일 저녁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44-46에 기록 된 비유를 말씀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값진 진주를 찾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큰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구원과 영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요한복음 14:6), 그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고 다른 사람이나 종교를 섬기지 않기를 원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더욱이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애굽기 20:3)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 다른 종교로 바뀌는 사람은 거짓된 것에 속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9.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한다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면 용서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1서 1:9에서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며 그분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사 45:21).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깨끗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0. 기독교 신앙이 없는 친구는 어떤가?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또 다른 이들은 당신에게 차가워 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11-12)

이러한 것들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기분이 상하지 마십시오.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로새서 3:16-17).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쓸쓸함이 그의 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당신의 옛 본성에 대해 죽었고 성령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살아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후서 5:14-17을 참조하십시오.

C. 신앙 생활

11. 새로운 신앙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단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성경은 분명 신앙생활이 성장과 발전의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18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6:1-2 또한 참조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는 일뿐 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에서도 성장을 바라고 계십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세 가지 태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순종하는가/가르칠 수 있는가/바라는가 이다. (고린도 후서 10:5b, 시편 32:8-9; 110:3)

하나님은 당신이 그 분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빌립보서 2:13) 다음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성장할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 물 세례/침례 (마태복음 28:19)
-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경청함 (데살로니가 전서 5:17-18)
- 매일 성경 읽기 (시편 119:11)
- 다른 신앙인들과의 나눔 (사도행전 2:42)
- 빵 나누기 (성찬) (사도행전 2:42)
-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헌금/헌물 (고린도전서 16:1-2)
- 성령의 능력을 받음 (행 19:6)

-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원함 (고전 12:31)
-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함 (갈 5:22)
- 다른 사람들, 특히 비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함 (행 1:8)
-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함 (마 5:16)
-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다 (시 100:2)
- 열심히 하고 유쾌하게 일함 (골 3:23)
- 찬양, 감사, 주님께 경배 (시편 149 편)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12. 그리스도인은 물로 세례/침례를 받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에게 “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 장 15 절 내용입니다. 요단 강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요. 나중에 지상 사역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제자들은 받은 계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메시지만 사도행전 2 장 28 절 이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추가적인 교육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13.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은 완전히 물에 잠겨야 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리스어인 “baptizo”는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위해 사용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들어가 봉헌하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 장 15 절에 기록 된 바와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 의해 물에 잠김으로써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요한은 터키 셀축에 바실리카 교회를 지었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새로운 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던 곳은 오늘날 바실리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침례 행위는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경험하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잠기었다가 다시 일으켜지는 것은 예전 삶의 방식이 죽는 것, 곧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롬 6:4)

신약 성경에서의 세례는 침수에 의한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악한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 2:12)

14. 예수님은 요한에 의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와 회개를 선포하도록 자신을 보내셨을 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와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33)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세례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눅 24:49). 사도행전 1 장 5 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성령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신자들도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행 10:44-48; 19:5-7)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강력하게 증거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놀라운 침례를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행 1:8)

우리는 성령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마태복음에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 장 18-20 에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의 은사를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눅 11:13, 엡 5:18)

15. 성령의 세례란 무엇인가?

성령세례는 신앙인이 능력 있게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준비되어가는 것에 필요한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 1:4-5)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19-23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숨결을 받는 체험을 통해 제자들이 거듭났습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5,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눅 24:49)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오순절에 성취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베드로는 참석 한 큰 무리에게 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행 2:14-39)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의 때 곧,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의 마지막
 때이기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는 두 가지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44 ~ 48; 19:5 ~ 7을 읽어
 보세요.

16.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그분을 기다리며 듣고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살전 5:17, 18)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인들이 기도를 통해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축복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힘을 얻기 위해 - 대상 16:11
- 필요한 것에 답변을 얻기 위해 - 마 7:7, 행 4:31
- 유혹을 저항하는 능력 - 마 26:41
- 기쁨으로 찬양함 - 요 16:24
- 기도 응답에 기쁨함 - 시 91:15
- 증가하는 믿음 - 마 11:24
-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 - 신 10:12-13

더욱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꾸준히 (눅18:1-8), 온 마음으로 (렘 29:13),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약 5:16), 동료 신자들을 위해 (엡 6:18-20),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지도록 (마 6:10) 기도할 것을 기억하라고
지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기도 할 시간이 있어야하며 기도를 일상 활동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17.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 제자들에게“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막 11:22-25)

시편 91 편 14-16 절에서 주님은“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다음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거룩함)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 장 15-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음의 죄 - 사 59:2
-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 신 1:45
- 욕망의 불안정성 - 약 1:6-7
- 방종의 욕망 - 약 4:3
-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간구 - 삼하 12:15-23, 고후 12:8-9

18.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중보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8:14-16)

우리는 기도 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 장 18 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로마서 8:26 - 27)

바울은 이러한 유형의 기도를 경험한 후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14-19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항상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7:27에서 다윗 왕이 기도 할 때 주님께서 성전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신앙인 자신의 뜻과 목적이 맞닿아있는 통로로서 기도하는 신자를 통해 무엇에 대해서 기도 할 것인지 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 할 것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히 11:6)

19. 성경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곧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히 4:12, 눅11:28)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 죄로부터 당신을 지키게 됩니다. 시편 119:11
-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편 119:105

- 당신을 현명하게 만들고 기쁨을 줍니다. 시편 19:8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요20:31
- 인내심을 가르치고 격려해줍니다. 롬15:4
-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전 10:11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매일 말씀들을 살폈고 (행17:2) 우리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성경을 읽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4 장씩 읽어도 성경을 읽는 데는 1 년이 걸립니다. 또한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매일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2:29 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경공부를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20.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는 건물이나 법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성전 곧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행20:28, 골1:17-24)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5, 16)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3: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교회를 위한 신약 성경에서 사용 된 단어는 그리스어“ekklesia”로, 문자 그대로 번역 된 것은 ‘부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참된 교회의 구성원은 세상, 육체, 마귀, 우상으로부터 분리 된 사람들입니다.(고후 6:17-18)

21.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 것인가?

신약에서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들이 거주했던 도시의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빌1:1, 고전1:2b). 그러나 서기 3 세기 이후 교회의 영적 생활은 중세까지 점차 쇠퇴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경건한 남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성경적 진리를 계시하고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칼빈, 루터, 위클리프, 벌링어, 후퍼, 부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아나 뱅티스트, 진젠도프와 모라비안, 에반 로버츠, 제프리, 마담 잔느 기용, 스미스 위글워스, 마더 테레사와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이미 존재하는 카톨릭 교회들과 비교하여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의 진리와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하기 위해 이들 모두 ‘믿음을 표현하려면 그 당시 교회 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대부분은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지내오면서 기념비적 조형물, 성전, 장막들을 짓거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특별한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경험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창 35:14, 15; 삼하 18:18) 새로운 세대는 종종 이전 세대의 경건한 사람들의 경험과 목적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벧후 3:14-15, 엡 5:25-27)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진리를 품고나아가기 위해 역사적인 운동들이 그분의 영광과 함께 하도록 도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전해보는 겁니다.

22.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가?

사람의 구원에 대한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려는 열망과 다른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에 참석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친교를 위해 집에서 그룹으로

모였으며, 큰 기쁨과 감사로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도시가 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매일 더하셨습니다.(행 2:44-47)

바울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석하셔서 성경말씀을 읽으셨습니다.(눅 4:16)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신앙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에 참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23. 기독교인이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어야 하나?

구원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를 표현한 지역적 부분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가족과 동일시하고 가족 구성원의 성장과 삶에 참여하기를 원해야 하겠지요.(롬 8:15, 히 2:11-13, 엡 5:23)

골로새서 2 장 19 절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헌신 할 때 몸의 각 지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새로운 신앙인들이 구원 받고 침례를 받자 마자 교회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행 2:41; 2:47)

24. 그리스도인은 어느 교회에 십일조를 바쳐야 하나?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십일조를 내고 헌금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전16:1-3)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 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후서 8:1-5 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풍성한 헌금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들을 새롭게 헌신할 때에만 그렇게 한 것 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십일조는 여러분이 등록한 교회에 드리게 되며 그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영적 양식, 자양분 및 목회적 돌봄을 받게 됩니다.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는 다른 지역에 주께서 지시하신대로 주어야하지만, 보통 지역 교회를 통해 모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

25.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일주일에 하루는 모두가 일을 쉬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는 본을 인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창 2: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출 20:8-11) 6 일만 일하고, 7 일째에는 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으로 안식일을 고난으로 만들어 버렸었기 때문에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7 - 28)

초대 교회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인 지도자들과 갈등이 계속 되면서 주일 첫날 예배를 위한 모임을 시작합니다(행 13:14-15; 13 :44-52; 20:7, 고전 16:2) 또한 주 첫째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확립합니다. (막 16:2) 기독교인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따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신약적 성취인 것 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말이지요.(고후 5:17)

26. 그리스도인이 독주나 마약 같은 것을 해도 되나?

음주와 약물은 오늘날 세계에서 매우 두드러지며 주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수익으로 인해 세계 주요 금융 및 정치 세력들의 소비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과 마약을 해야만 한다는 상업적 압력을 받고있을 뿐 아니라 사탄도 사람들을 이 사악함에 빠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탄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8-9에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은 마약이나 독주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 의지력을 잃기 때문이죠.

잠언 25:28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도시는 적의 공격에 저항 할 수 없습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과 마약으로 죽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사탄을 저항 할 수 없고 삶을 침략하는 온갖 악한 세력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잠언 20:1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의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도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9-21을 읽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 13:13, 에베소서 5:18; 잠언 23:20; 잠언 23:29-31; 고전 6:19을 참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파괴적인 일들을 멀리하도록 합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16:25)

27.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해도 되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16-18)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모든 정욕과 욕망을 이겨야 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 전서 4:1-5에서 우리는 몸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정욕과 욕망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뎌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남아 있는 삶을 악한 욕망을 쫓는데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흡연은 물론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성경은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되는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돌보도록 지시합니다. (고전 3:16-17) 또한 베드로전서 2:24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옳은 일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의 몸으로 취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곧 그의 고통받음으로 당신 치유된다는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죄의 습관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28.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는 곳에 가도 되나?

많은 형태의 세상 오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양심을 더럽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클럽, 극장, 바, 디스코, 카지노, 록 음악 콘서트 등은 성령의 열매와 일치하지 않지만 갈 5:19-26에 설명 된 육체의 일과 동일시됩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에 주의를 기울이고 듣는 음악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들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을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십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 활동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효과적 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 장 11 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 우상 숭배자, 중상 모략자,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사기꾼과 아무 관련이 없도록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9.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인류의 필요를 이해 하실 뿐 아니라 알고 계시며, 실수로 낙담 할 때도 격려와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 대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 4:19).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하늘로 간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16) 끝으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일 5:4-5) 하나님은 신실 하시며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받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전 10:13)

30. 뒤로 물러 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갈 6:1-3)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시면 금식하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5-16).

베드로 후서 1:1-10은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이 구절을 활용하여 뒤로 물러 난 당신의 형제나 자매에게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31. 그리스도인이 우울하고 낙담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다윗 왕은 종종 우울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훌륭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편 42: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울증과 낙담에서 가장 빠른 출구입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축복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한 일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장래에 하실 일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은 또한 시편 37:23-24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도행전 16:23-26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우울하고 낙담해야 할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석방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고, 수감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돕기 위해 놀라운 구절을 썼습니다. 로마서 5:1-5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기도로 그분께 부르짖고, 좋아하는 찬송가나 노래들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울증은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결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우울증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위해 의학적 조언 및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32.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하여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거룩함, 정화 및 죄 씻음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해 거듭날 때부터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행하고 경험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성화의 일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성령의 역사 하시는 것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정화 능력을 통해 “...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 2:21)라는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 롬 15:16와 고전 1:

D. 강한 믿음을 키움

33.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잃어버린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19:10; 마 18:11). 또한 요한복음 12:47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염려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7-28)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19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34.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놀라운 답은 누가복음 17:5-6에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이러한 복음은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고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경말씀,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 할 것이며 이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21-22에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35. 믿음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나?

우리의 믿음은 시험 받음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1-5에서 그러한 시험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처럼 사용해 본 후에야 어떠한 진가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지금 서있는 최고 특권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품고 계신 모든 뜻을 누리기 위해 자신 있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지요. 시험이나 시련을 직면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연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36. 죽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응답 할 힘이 없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듣거나 답하여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 또는 어떤 시스템들을 의지할 때 발생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간구에 응답 할 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은 추종자에게 물품을 요구하죠.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14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37. 믿음과 기적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기적을 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홀 동안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11:1-45).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마17:20) 누가복음 7:9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로마의 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대장은 집에 있는 그의 종이 증거를 보지 않고도 먼곳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치유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눅7:1-10)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외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는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거의 없었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마14:25-34)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원리이죠. 과부의 마지막 동전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로마 대장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기적적인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창조 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들을 행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8.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매우 원하죠. 그 관계가 의미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진심으로 찾고 믿으며 신뢰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상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확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믿는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세계관을 제공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창조된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주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39. 그리스도인은 왜 금식하나?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16-18)

위 말씀에서는 금식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금식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자기부인이 필요하고 육체적 욕망을 물리치고 단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하게 된 문제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기는 것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21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고는 쫓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악마의 권세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로한 선지자인 안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종종 금식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의 아들이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예언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눅2:36-40)

증가 된 영적 힘과 성령에 대한 더 큰 민감함은 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힘을 구할 때 정기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있는 기독교인은 금식하기 전에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하겠죠. 금식은 몸에 유해한 요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함으로써 영적 갈급함을 증가시키고 신체를 단련합니다. 사도행전 13:2-3 절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에 대해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노회를 가질 때 하나님은 금식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23에도 노회 혹은 지도자를 뽑을 때의 금식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E. 경건한 성품으로 성장

40. 그리스도의 제자와 추종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단순히 추종자 있습니다. 추종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순종하거나 예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지에 이끌 리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헌신 할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삶 전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며, 제자를 삼을 이들을 찾아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려는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연산적인 곱셈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마태복음 28:19-20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분의 왕국을 번성하며 훈련 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41. 경건한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 주 또는 한 달 혹은 일 년 동안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생 능력 있는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평생의 여정을 유지하려면 좋은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경건한 성품을 갖춘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집사, 장로, 목회자 및 감독은 모두 경건한 성품 때문에 뽑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딤후 3:1-16 에서 가르쳤습니다. 성품 목록은 구절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요. 또한 갈라디아서 5:22 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성품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대조적으로 갈라디아서 5:15-21 에서 육체의 정욕이나 탐심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지 경고합니다. 딤후 3:1-17 을 보세요.

삶에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서 경건한 성품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한 사역의 동기로서,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실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복음 15 장에서 우리가 포도 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원사입니다. 그는 가지에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자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42. 온전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습니까?

온전함은 사람이 충실, 신뢰, 정직, 의존도, 진실 및 자제력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성경의 가르침,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사도,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전함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13:13) 신뢰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딤후 3:2는 장로들이 결혼했다면 한 아내에게 진실한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준은 남편이 온전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4:15-16 절에서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전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온전함의 상징적 표시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2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 절 3-8 절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들이죠. 온전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1:3 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합니다).”라고 되어있죠.

시편 15 편을 쓴 다윗 왕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 할 수 있는 8가지 원칙들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43. 집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집사란, 목사(또는 장로)와 같이 착하고 꾸준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디모데 전서 3장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딤후 3:8-10) 디모데 전서 3:11에서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사는 성품의 자격심사와 교회에서의 성실한 봉사를 위해 세워지게 됩니다. 집사는 장로/목사 직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고 신실한 방식으로 목회하는 것을 보여줄 때 장로/목사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디모데 전서 3 절 13 절을 읽어 보세요.

44.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서 3장 1-7절을 통해 장로 또는 목사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참 신뢰가 되는 말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음의 성경구절들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2:24, 마태복음 19:5, 마가복음 10:8, 에베소서 5:31; 고린도전서 7:39 위 구절들의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아내가 사역에 참여함에 있어서 남편의 직분을 함께 분담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그분의 본성이신 하나님임을 공유합니다.

F.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45.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갑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는 어느 날 밤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위와 같은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3:3-21)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죄 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회개합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영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구함을 통해 성령님께서 마음/영에 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린도 후서 5:17-21에 보면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다락방에서 이러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19-2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7:20 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가르치 셧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 17:20-21)

예수님은 누가복음 21:5-36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일어날 특정 사건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17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과 통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 영의 자기 중심적 권력을 꺾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초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의 정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지배하여 굴복시킴으로 영향력을 이 땅에 확대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47.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치유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어둠과 악을 구속하는 기도, 마귀 결박하는 신앙인들의 힘, 병자를 치유하는 것 등,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48.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십자가의 죄 사하시는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뤄졌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언젠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권능을 궁극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른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일단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14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 집단에 선포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날 이전에 모든 민족에게 이 선언의 완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마9:35) 우리는 그 일꾼 중 한 사람이 되도록 초대 받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는 늘 반대세력들이 도전하지만 마태복음 4:23-25에 기록 된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초래할 뿐입니다.

49.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 정부를 대신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지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있는 국가의 정부를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1:1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계11:15-18)

마지막 때의 더욱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사건은 요한 계시록 17:12-14 과 이어지는 17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18-23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의 범위를 엿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G. 정부와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50. 우리는 정부와 준법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택하도록 강요 당하지 않는다면 정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선지자 요한은 요한 계시록 11:15에서 국가와 정권에 대한 악과 선에 대한 통찰을 가르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계 11:15-18) 이것은 권위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2)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잠언에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잠 29:2)라고 가르치죠.

로마서 13 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우셨기 때문이죠.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권력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금과 관세를 지불해야 하지요. 사도행전

5:29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시는 일들에 세상 정부가 반대했을 때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권위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죠. 기독교인은 시민 불복종에 참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1. 그리스도인은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권위에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10 - 11 "...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권위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되고 권위있는 사람이 될 때 존경 받지 못합니다. 권위에 대한 무례함은 사회의 혼란 상태인 무정부 상태로 연결되죠. 사랑과 신뢰가 없는 기독교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존중은 사랑으로 돌보는 지역 사회가 움직여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집사에 관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딤후 3:12-13)

52. 예수님은 급진적인 사상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린 혁명가들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급진적인 생각과 행동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누군가 당신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리고, 사마리아인(경멸하거나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나병환자(추방자)를 치료하고, 완전히 낫선 처음 보는 이들에게 환대하여 돌보고 심지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 주고, 침략군들의 종을 치료해주는 것들 말입니다. 또 한 마일을 기꺼이 더 걸어가주고,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존귀하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살펴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마음이 딱딱하게 차가워진 종교 지도자들을 심히 꾸짖었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 대부분의 나라들은 악한 영향력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과 자유를 추구하며 세상 나라들에 대해 역혁명적이지요. 그들은 지배하려고 하고, 권력을 남용 할 뿐 아니라 통제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별력과 영적 권세로 저항하며, (군사권력이 아닌) 조력함을 통해 악한 세력을 몰아 내고 포로 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 이뤄진 것처럼 땅에도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53. 민주주의는 기독교 정부의 형태입니까?

민주주의는 모든 성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 시스템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유를 영접하며 신뢰와 진실을 바탕으로 번성합니다. 선거에 출마 한 후보자가 선출 된 경우 자신의 의도에 대해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진실로 최고의 후보자를 찾고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부패, 악, 무정부 상태에서부터 국민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의로움은 국가를 명예롭게 하지요. 십계명(출 20장)을 지키지 않는 민주주의는 그 나라에 저주와 같습니다. 십계명이 민주주의 국가의 법의 기초라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시스템은 기독교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사람입니다. 정권의 모든 구성원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온전히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출 된 정부 대표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부는 자유를 선호하며 기독교 원칙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H. 성경은 다문화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나요?

54. 기독교인이 된 나는 민족 정체성을 잃게 되나요?

하나님은 창조물에 다양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종에는 무수한 변형이 있죠.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무한한 다양성을 나타나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세계 모든 종족은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언어들은 가장 높으신 창조의 하나님께 고유한 이름을 쓰죠. 중국인은 '샹티', 아랍인은 '알라', 마오리는 '이오'라고 합니다. 각각의 문화들에는 홍수 이야기도 있고 구약의 이야기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시대도 있고 하나님은 창조 이후 바벨을 둘러싼 사건들을 통해 모든 종족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1 장에 기록 된 바벨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 언어와 인류 학적 구별을 가지고 지구 전체에 흩어지게 되는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복음 28:18-20 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는 모든 민족 집단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14 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좋은 소식을 받는 것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 21:24-27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로 가득 찬 천성 도시에 대한 예언 적 견해를 제공하죠.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각각의 민족성이 없었다면 요한은 다양한 민족 집단을 구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모든 민족 집단들은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분별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행위를 정화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일이죠. 그것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문화권에서 교회 지도자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인 행위이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개 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55.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만드셨습니까?

바벨탑 시대를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여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창11:1-9)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한 민족들이 더 이상 연합 할 수 없도록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인류를 보실 때 적어도 그 민족들 중의 일부인 겸손하고, 주님을 구하며,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믿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서의 구속적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선교 목적이 이 땅의 일부 민족에 의해 수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민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56. 예수는 유대인의 신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태어나 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토라(구약의 처음 다섯 권의 책), 시편, 솔로몬 왕의 잠언 등 말씀들을 통해 지혜에 대해 온전히 교육받은 유대인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기도 했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갈데아인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시인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가장 높으시고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야훼만을 경외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그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히 7장)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지상의 단 한 민족에게만 성육신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비록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명령을 받은 것임을 제자들에게 늘 상기시켰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축복하시려는 그의 소망에는 결코 차별적이지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그는 사마리아인(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고 싶어하셨습니다.(마28:18-20; 24:14, 계 21:22-27) 성경에 계시 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언어로 최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57. 나의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로마인인 동시에 유대인이었던 그의 부모 국적 때문에 이중 국적자였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분별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행위를 정화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일이지요. 그것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문화권에서 교회 지도자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인 행위이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개 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문화에는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러한 문화의 좋은

면들은 향상하고 악한 면들을 정화하거나 구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지역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사울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종 직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배우게 되었습니다.(행 9:31)

어느 부족의 정령주의자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바뀌야 할 필요가 없는 관습의 예로는 그들이 가졌던 '관대함과 환대'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딤후3:2) 그러나 꼭 바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관행으로 '헤드헌팅(참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애니미즘적 헤드헌터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들이 이웃 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좋은 헌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웃 부족들은 더 이상 참수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I. 하나님

58.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 누가 하나님을 창조하였나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합니다. 요한 계시록 1: 8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사야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9: 6-7 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1-5)

59.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신을 믿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찢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찢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 대 19-25).

이사야 46장에 성경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장 9 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리시며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 46:9, 12-13)

우상과 신을 숭배하는 것은 지혜 없는 사람의 어리석음이요, 사람이 숭배하는 신이 너무나 많은 이유입니다.

60.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 하였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왜 세상이 영원히 순수 할 수 있도록 사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 20:1-2에서 우리는 사탄이 1000 년 동안 결박 될 것이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1000 년 동안 땅을 다 스릴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시간이 끝날 때 사탄은 다시 풀려서 한 번 더 하나님께 패배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왜 사탄은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인류의 목적을 다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10-12은 하나님께서 악마의 행위들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어린양의 피와 신앙인들의 간증으로 그를 이길 사람들(신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마가 땅에 풀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죠.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한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 악을 물리치면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 칠 것입니다.(약 4:7)
-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전 15:57)
-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합니다.(고후 10:4-5)

- 이기는 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1 5:4)

61. 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로마서 1 장과 2 장에서는 온 인류에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에게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조물(CREATION)은 세상에 있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롬 1:20)

양심(Conscience)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더라도, 마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각 사람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롬 2:14-15).

그러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어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34 v 8)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믿고 (기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이 진리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엡 1:18)

그런 다음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적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2. 하나님은 사랑 이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을까요?

모든 죄에는 수반되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롬 6:23)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고 죽음의 형벌 아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형벌에서 해방 되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는 죄가 없었고 죽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의 값을 그분이 지불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4-6)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이죠. 사탄의 약점은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겸손과 끝이 없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63.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 위격 중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세
위격은 구분 할 수 있는 성품이지만 나뉘어지지 않고, 함께 영원하며, 전지하고,
전능하며 모든 곳에 계십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요일 5:7) 또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신 6:4)
늘 하나이시고, 목적과 사역 또한 하나로서 서로 협력하지만 각각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6-1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위격 모두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 장의 지상명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이를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6 장에
성령님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 복음 16
v 13-14)

성령님께서 하시는 다른 사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죄를 판결하심 – 요 16:8

-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음 - 뵤전 3:18
- 사역하게 하심 - 고후 3:6
-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하심 - 뵤후 1:21, 요 16:13
- 생명수를 주심 - 계 22:17
- 상담하심 - 요 14:15-21
- 신자들 안에 거하심 - 요 14:17.
-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 - 행 1:8
- 악령을 이기게 하심 - 마 12:28, 요 4:30
-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 주심 - 롬 8:26
- 신앙인들의 움직임을 인도하심 - 행 10:19-20
- 교회의 지도자 선택을 지시하심. 행 13:2
- 사역해야하는 선교지를 선택하게 하심 - 행 16:6
- 양자 됨을 보증하심 - 롬 8:16.
-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 - 엡 5:18

64. 삼위일체는 무엇(또는 누구)입니까?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말씀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요한 일서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요일 5:7) 이 서로 일치하는 세 위격에 대한 성경 용어는 ‘신성(Divine Nature)’이며 롬 1:20, 골 2:9, 행 17:29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위격의 특정한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삼위’는 하나님의 세 위격을 의미하고 ‘일체’는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세 위격의 일체’에서 나온 단어이죠. 또 삼위일체라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이시고, 세 분이시며, 구별 할 수는 있지만 분리 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운행하시고, 세 위격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A.D.356 년에 단일신론과 삼신론적 이단에 직면한 초대교회 교부들은 ‘아타나시아 신조’를 엮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ATHANASIAN CREED 356 A.D. 아타나시아 신조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삼위 안에서 일체이신 하나님, 일체 안에서 삼위이신 하나님의 위격을 혼란시키거나 속성을 나누지 않고 경배합니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도 다르며, 성령의 위격도 다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하나님임으로 같은 영광과 같은 위엄으로 영원하십니다.

성부께서 그러하시듯,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창조되지 않으신 성부와 같이, 성자도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령도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해될 수 없는 성부와 같이, 성자도 다 헤아릴 수 없고, 성령도 다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성부와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또한 영원하신 세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한 분이시며, 창조되지 않으신 세 분이 아니라 창조 되신 한 분이시며, 다 헤아릴 수 없는 세 분이 아니라 다 헤아릴 수 없는 한 분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성부와 같이, 전능하신 성자이시며, 전능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의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의 전지전능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부는 하나님이며,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신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로 각각의 위격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명령받았기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세 분이신 하나님 또는 세 명의 주님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부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누구에게서 나지도 않은 분이십니다.

성자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성령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누구에게서 나지도 않으셨고 오직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아버지가 아니라 한 성부가 있고, 세 아들이 아니라 한 성자이시며, 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일체에는 타자의 앞이나 뒤에 있는 이가 없으며, 첫째 되는 것과 마침이 되는 것이 없으며, 다른 이보다 크거나 작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는 모두 함께 영원하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모든 점에서 보아, 삼위일체의 연합과 연합된 삼위 일체의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65. 성경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물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존재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을 돌보실 뿐 아니라 인류가 나기도 전에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속성을 모두 보여

주시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자녀를 향한 필수적인 목양으로의 돌봄과 공급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로마서 8:15 - 17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66.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 육식, 정신, 그리고 감정적인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7-12)

67. 모든 종교가 동일하지 않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 차이로인해서 화해 할 수 없습니다. 종교에 연합이 있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혹되었으며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 피상적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및 성자이신 것과 부활을 부인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고전 15:20)

성경은 출애굽기 20 장과 신명기 6:4에서 오직 한 분,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 숭배를 질투하시며 금지하시죠. 또 어떤 유명한 세계종교 중 하나는 수 많은 신을 옹호하며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타당한 신을 선택해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있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죠. 이러한 사실에 명백히 충돌하는 가르침으로는 종교의 통합을 이끌거나 화해 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추구하고 신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는 기본 개념도 그 종교들 안에서 일관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죠. 또 어느 잘 알려진 세계종교 중에는, 구원자가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창조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자신을 겸손한 낮추고 하나님을 선물과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다함이 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양한 종교들은 인류가 고행을 통해 구원 얻도록 강요하거나 일반적으로 환생이라고 알려진 더 나은 것으로 태어날 것이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치죠.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68.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은 꼭 중요한 것일까요?

진리를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진실은 거짓과 거짓 계시들로부터 당신을 꺼내어 줄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시에 있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지옥이며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죠. 두 목적지 사이의 선택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 왕은 시편 14:1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복음 7:14-20에서 삶의 두 가지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과 동일한 열매 감별에 대한 방법이 종교와 신앙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69. 늘 하루 다섯번 기도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야 하나요?

하루에 다섯번 기도하는 것은 칭찬 할 만하죠.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에베소서 6:18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살전 5:17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딤후 2:8에서 젊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므로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나라오는 기도의 참 아름다움이니까요.

70. 이전에 해오던 기도들은 암송되어왔는데 기독교의 기도들도 암송해야 할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훌륭한 훈련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워야 할 성경구절들이 많습니다. 요1 1:9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갖는 죄 많은 생각들과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롬 8 장은 성령 안에서 사는 법에 대한 필수적인 가르침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암송해야 할 성경의 위대한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갖는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대화로 표현될 수 있고 대화는 상호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주실 때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열심히 경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송 된 기도문은 상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사용할 성구를 암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많은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들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시 2:8, 사 40:3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그 외에 특별한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기도 할 때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날에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문들을 암송해보세요.

71. 천국에는 힌두교도, 불교도, 무슬림들도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비밀 신자들이 있죠. 기독교인이 극소수인 일부 국가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겉으로는 타종교의 관습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코란 경전과 바가바드 기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힌두교도들과 무슬림들은 이러한 자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한된 계시들을 통해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면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요 3:3에서 예수님은 한 종교지도자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일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사 2:2-4을 읽어보세요.

1. 위인들과 기타 종교들

72. 수많은 위인들이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도 성경만큼 공부해야 할까요?

위대한 사람들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 할 수 있습니다. 찰스 피니, 마틴 루터, 와치만 니, 윌리엄 케리, 헨리 마틴, 데이비드 리빙스톤 등의 사람들은 모두같이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그들이 말한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한 지침내용들을 빌립보교회에 보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4:8-9)

성경이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사실이며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운 해석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전한 것이죠. (벧후 1:20-21) 경전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 깊게 공부하는 것을 안일하게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73.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을 우리도 먹으라고 준다면 이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20-31) 음식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먹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행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롬 14:23)

행 15:13-20 에서는 야고보가 새로운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4. 향을 들고 조상에게 기도해도 되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8-18에서 앓은뱅이가 고침을 받은 기적을 본 후 기적을 행한 자신들을 숭배하려던 무리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출 20:3)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롬 1:23) 하나님은 지붕에서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자들에게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렘 19:13)

베드로 전서 1:17-19에서 불의한 조상의 길들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신명기 18:11에서는 강령술 곧, 죽은 자에게 상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조부모 및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사신 삶과 선조라는 사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가졌고 닮은 구석이 많으니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가르칩니다.(엡 6:2)

K. 죽음과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

75. 기독교인은 죽는 즉시 천국에 가게 되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옆에 달린 뉘우친 한 강도에게 같은 날 천국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는 믿었습니다.(눅 23:43)

바울은 그가 죽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두 번 논의했습니다.(고후 5:8, 빌 1:23-25)

바울은 그가 영으로 또는 육신으로 전에 알지 못하던 천국을 방문했을 때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가 본 것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설명하거나 말로 표현 할 능력을 넘어 섰다고 말했습니다.(고후 12:2-4)

예수님은 배신당하시던 밤에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1-3)

76.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심판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으며 그 후에는 그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사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요3:18, 롬3:23, 히9:27)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각각 자신에게 의로움을 심고 자비를 거두어야 하겠고 또 우리 마음의 밭을 부수어 주님을 구하고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해야합니다.(호세아 10:12)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고후 6:2)

L. 그리스도의 재림

77. 환난의 때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요한 계시록 7:13-17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은 큰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78.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 된 앞날들을 어떻게 예견 했나요?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 할 때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한 환상을 보았죠. 환상에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고 그가 본 것의 중요함을 그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받아 적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전은 눈으로 보지만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고 그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건을 이미지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 1:9-1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환상을 보았었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 마 17:9, 바울 - 행 16:9)

79.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먼저 가서서 하늘에 자리를 준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요 14:1-3) 그러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의 날은 예기치 않게 밤에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 v 1-2).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살후 2:3-10)

주님은 요한계시록 16:15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조 : 행 1:11, 눅 21:27, 마24:27; 26:64

M. 성경 – 하나님의 말씀

80.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진위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역사적으로 정확한가? 역사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1947 년 무슬림 베두인 목자인 무하마드 딘은 와디 쿠파란의 암벽 틈새에서 '사해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두루마리 중에 있는 이사야의 텍스트는 분자 실험을 거쳐 기원전 100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66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오늘날의 본문들과 일치합니다.
2.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구약 성경에는 탄생, 생명, 죽음, 부활에 관한 333 개의 예언이 있는데, 모두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이사야서는 그리스도 이전에 존재 했음이 입증되었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이사야서 9, 49, 50, 52, 53, 55, 61 장 등)
3. 능력이 있는가?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능력 있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이 진실하다는 증거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고(요 3:16),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약 4:7) 죄의 용서(요일 1:9)가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벧전 1:25)

81.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벧후 1:21) 요한 계시록 1:10에서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으로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40 명의 저자가 쓴 66 권의 책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66 권의 책은 역사, 시, 예언, 노래, 복음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 또는 편지와 같은 여러 문학 장르형식을 가지고 있죠. 성경이 편찬되었을 때 그 결과는 성경의 정경이라고 불렸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각 책의 내용을 매우 열심히 연구했고, 성경 66 권이 정경에 포함될 신성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금의 편집을 만들기 위해 전적으로 신성한 영감에 의존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82.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은 정확한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죠.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고고학에 의해 입증 된 사건 및 장소 목록입니다.

1. 대홍수 - 약 기원전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막 모래 지역의 대홍수.
2. 노아의 방주 - 1955년 프랑스에서 온 페난드 나바라는 아라랏 산 꼭대기에 단단한 얼음에 박혀있는 거대한 배의 빔에서 목재를 발견했습니다. 목재는 최소 4000년이 되었죠.
3. 마리아왕의 왕국 - 1933년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굴 된 아브라함 시대의 왕국.
4. 롯의 아내 및 소돔 심판 - 제벨 우스 둠의 소금 기둥, 사해에 잠겨있는 숲과 대 균열.
5. 보디발의 통치 동안, 요셉이 이집트에 있던 7 년간의 기근에 대한 세부 사항들.
6. 이집트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 된 내용들 - 노예 노동자, 전염병 및 구출 자 MS (모세)에 대한 이야기.
7. 솔로몬의 구리 광산 재발견. 또한 그의 딸 마구간이 프깃도에서 발굴됨.
8. 사해 두루마리 - 1947 년 쿨란.

더 많은 발견들이 있지만 몇 가지 성경에 관한 역사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들만 나열해 봅니다

83.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영감과 가르침으로 기록되었죠.(계1:10) 영적 진리를 이해하고 영생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요일 5:13)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과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 계시됩니다 (요 4:24)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요일 2: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 장 5 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색인사전’과 ‘도록으로 된 성경 사전’ 및 성경 해석을 소개하고 제공하는 책들입니다. 고든 피와 더글러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판: 성서유니온)와 같은 책들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중고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매우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84. 번역 될 때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세기 동안 주요 성경 번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신성한 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할 뿐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 안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간절히 구한 남녀였습니다. 번역은 수많은 학자, 교수 및 학생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몇 가지 사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된 원서를 구해서 포괄적인 용어사전과와 한영대조성경들을 통해 번역본을 직접 공부할 수도 있겠죠. 오류를 발견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원본의 깊이를 연구함으로써 말씀 구절의 더 완전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작업이죠.

1947년, 쿤란에서의 사해 두루마리 발견은 구약 성서의 많은 책들(예: 이사야)이 2000 년 이상의 복사와 번역에서도 의미가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복사하고 저장하는 세심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독자들에게 구약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8을 읽어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N. 미래에 대해서

85. 어떤 사람들은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나요?

세계의 미래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을 알리는 것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예언이나 운세라는 사탄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1. 예언 -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엡 4:11)를 가진 사람들을 그의 몸 된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항상 성경에 동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2. 거짓 예언 또는 운세 - 사탄은 거짓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추종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실현되고 다른 일부는 실현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살후 2 장) 이러한 예측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하며 듣는 사람들을 두려움과 속박에 빠뜨립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이 이러한 것에 연관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신18:9-12)

성령님은 신앙인들에게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죠. 성령님께 구하면 이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O.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86. 기독교인들은 왜 결혼 후에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계 21:9)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순결과 결혼의 이미지는 구속 된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실 때 그는 신부를 위해 오십니다. 그의 신부는 갈보리에서 행하신 희생을 온전한 축복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구원함을 받은 신앙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 신실함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기 위해 이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만을 경배해야 하고 다른 신을 숭배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을 갖고 고린도전서 7 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의 가르침에서 결혼 관계의 순수성과 배타성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얻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구와 그 백성을 파괴하려는 모든 악은 창녀 또는 매춘부로 묘사되고 지상의 악인들과 성적 부도덕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악하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악마적인 존재들은 그들의 마지막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 12장/17장을 읽으세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것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결혼 전의 성적인 순결에 대한 기독교인의 주장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재림을 맞이할 때, 준비가 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그림입니다. 결혼에서 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신실함은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과 그분만을 숭배하고자하는 우리의 열망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이신 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스러운 희생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은 죄인을 위한 그분의 큰 희생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결혼관계는 지속적으로 충실하고 친밀한 사랑과 신뢰에 기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증거자가 되어야하며 남편과 아내는 충실한 희생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87. 궁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이 논리는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뜨거운지 알기 위해 난로의 열이나는 부분을 만져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친밀함은 거룩한 약속을 지키려는 두 파트너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삼가함으로써 각각 파트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미래의 결혼 성약에 앞서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되고 건강한 존경심을 키워줍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며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마태복음 5:32과 15:18-19를 참조하십시오. 대중의 문화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괜찮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결혼 전후에 여전히 충실함을 실천하고 있으며, 서로를 향한 신뢰를 경험함으로 강력하고 충실하며 사랑스러운 평생의 관계의 이익들을 누리게 됩니다.

88.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란 무엇입니까?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은 목적으로 신체 기관이 사용되는 성교입니다. 동물과의 수간 또는 성관계는 이러한 유형의 관행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로마서 1:18-32에는 인간이 참여한 악한 더 많은 부자연스러운 성적 행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존귀함과 소중함을 가지고 대해야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 전서 12 v 18 - 26)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존귀함과 소중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89.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혼은 영예로운 것입니다.(히 13:4) 한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아내(또는 남편)에게 연결되어 시간이 지나면 자녀를 낳고 영아기를 거쳐 유아기를 지나는 성장과정을 보며 조부모가되기까지의 삶 전반에 걸친 기쁨을 누리며 가족을 세웁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헌신적인 관계를 위한 중요한 기초이며 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한 안전한 틀을 제공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계21:9)

90. 예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마 5:32 에서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9:7-11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그의 관심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좋은 지표이기도 하죠. 겸손은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하게 하며 이혼을 피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1-30에서 우리는 다섯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은혜가 가득한 만남에 그 여인의 삶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기꺼이 회개하고자하는 죄인 누구에게든 참 좋은 소식입니다.

91. 낙태해도 괜찮습니까?

누군가를 죽여도 괜찮습니까? 출애굽기 20:13 은 '살인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아로 있을 때 낙태 되었다면 이 책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 생명은 잉태에서 시작되죠. 침례 요한은 태어나 기 전에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태내에서 뛰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반응했습니다.(눅 2:39-45) 그러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살인입니다. 잉태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와 구속을 이뤄갈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종종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매우 복잡한 결정이며 의료 종사자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의사도 목숨을 걸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 생명을 끊는 것은 의료계 윤리에 위배되니까요.

P.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92.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으로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흥미 진진한 배움의 과정들이 되기를 원하시죠.(벧후 1:1-10)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얻은 지식에 대해 계속해서 앎과 경험이 쌓여서 옳고

그를 분별할 수 있기까지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당신의 안내
책이며 그 말씀은 당신을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임을
기억하세요.(이사야 2:3)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 가서 그분의 도움과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벧전 3:15)

Q.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목표!

93. 기독교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영광의 소망이신,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개개인이 깨달음을 얻고 사명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분에 지식에 가득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고 주님의 영에 의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엡
1:18; 4:4, 고후 3:18, 빌 3:14, 골 1:27)

전도 가이드

: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 할 때 도움이 되는 성구들

인간의 상실에 대하여:

잠언 20: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온전한 정답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골로새서 1: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요한 복음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돌이킴(회개)에 대하여:

이사야 55: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백(죄를 고백함)에 대하여:

요한일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간구(기도)에 대하여:

요한복음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당신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삶에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받을 은총에 대해서:

요한복음 1: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알 같이 여감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9-15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새로운 기독교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와 다른 아시아 국가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책자는 새로운 신자들이 침례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 가르침은 많은 새로운 신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Bryan Johnson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교사이자 자격을 갖춘 신학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터 로모도, B Sc. (경제학), Cert. Christian Min.

YWAM Prayerstation – Auckland, New Zealand